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1(1), 107~124, 2023. 2. https://doi.org/10.17279/jkagee.2023.31.1.107

고등학교 「여행지리」 과목 교사 교육과정 실천과 학습자 인식 특성

강창숙* · 이영재**

A Study on the Teacher's Curriculum Practice and Learners' Perception Characteristics in the High School Travel Geography Subject

Chang-Sook Kang* · Yeoungjae Lee**

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교 여행지리 과목 교사 교육과정을 실천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 인식 특성을 탐구한 실행연구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 교육과정의 실천적 지식은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목표로 생활기록부 기록에 도움이 되는 수업, 지리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긍정적인 장소감을 형성할 수 있는 수업, 세계시민의식을 가진 여행자와 활동가를 지향하는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여행지리 수업에 대한 인식은 재미있는 수업, 여행을 체험하는 수업, 실용적인 여행 지식을 학습하는 과목, 지리를 여행으로 학습하는 과목, 진로에 유용한 과목의 5개 범주로 나타났다. 재미, 여행, 실용성, 지리의 4개 개념은 '재미있는 수업'을 핵심 범주로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진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밖에 설문지 응답에 '침묵하고 무응답'하는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 학생이 여행지리 수업 활동에서 유의미한 학습을 경험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를 통해서 교사는 여행지리 과목의 정체성을 '지리'에 두었지만, 학습자는 '여행'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어: 여행지리, 진로 선택과목, 교사 교육과정, 실천적 지식, 학습자 인식

Abstract: This study is action research that examines the teacher's curriculum practice and learners' perception characteristics in the high school travel geography subject.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ractical knowledge of the teacher's curriculum was planned with the goal of "classes that are helpful for students' careers." The principles of practical knowledge for this were designed and implemented in classes that help record student records, classes where geography can be used in daily life, classes that can form a positive sense of place, and classes aimed at travelers and activists with global citizenship. Second, students' perceptions of travel geography classes appeared in five categories.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o be an interesting class, a class to experience travel, a subject to learn practical travel knowledge, a subject to learn geography through travel, and a useful subject for careers. The four concepts of interest, travel, practicality, and geography showed a high frequency of appearance as key categories of an "interesting class," but the frequency of career-related was relatively low.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silent and non-responsive" to the questionnaire response was also high. This disproves that many students did not experience meaningful learning in travel geography clas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teacher focused on "geography" the identity of the travel geography subject, but the learner focused on "travel."

Key words: Travel geography, Career elective subject, Teacher's curriculum, Practical knowledge, Learners' perception

*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aia2004@cbnu.ac.kr
** 강원도 정선고등학교 교사(Teacher, Jeongseon High School, Gangwon-do), sky89526@naver.com

www.kci.go.kr

Ⅰ. 서론

1. 연구목적

여행지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편제된 지리 과목이다. 이 과목은 일반 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의 '보통교과'에서 진로 선택과목으로 편제되었다(교육부, 2015).[1)]

이처럼 여행지리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진로나 적성의 심화, 융합, 체험 등을 위한 진로 선택과목으로 처음 편성되었기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도 여러 쟁점이 제기되었다. 즉, 여행의 의미와 공간적 범위 설정,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등 일반 선택과목과의 관계 설정 및 차별성, 학생들의 활동 중심 교육과정 개발, 진로 선택과목으로서의 정체성 문제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었다(심승희·김현주, 2016).

국가 교육과정 개발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쟁점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여행지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대상 과목도 아니고, 교과서도 인정도서 2종만 개발되었다. 이 과목이 고등학생들의 진로나 적성 탐구와 선택에 얼마나 유의미하고, 진로 선택과목으로서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는 온전히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실제에 달려 있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진하다.

그동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은 '학습자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확대하거나,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축소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확대, 축소를 반복하면서 많은 과목이 일시적으로 편제되었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명멸해 왔다. 최근 수시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회과의 경우는 교육과정 정치의 편의적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으며, 잦은 수시 개정으로 새 교육과정은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선택 교육과정이 기본 틀이다. 모든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편제되어야 합당하기에, 공통과목이라는 명분으로 필수 이수 과목을 편제하는 자기모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접근하면, 여행지리는 필수 이수하는 공통과목, 필수적으로 선택하는 일반 선택과목과는 과목의 성격과 기능이 차별화되는 과목이기에, 교사와 학생들에게 일시적으로 편제된 과목 혹은 수시 개정될 수 있는 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여행'은 오래전부터 '관광지리학' 등 지리학의 전통적 탐구영역으로 논의되었고, 중등학교 지리과의 단원이나 학습주제로 구성되어 왔다(강창숙, 2016). 게다가 여행은 현대와 미래사회에서 개인적, 사회적 요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분야이며, 여가와 관광활동을 포괄하는 여행은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 모두에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여행지리'에 대한 논의는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의미는 물론 미래 지리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행지리 학교 교육과정은 2019년부터 시행되었고, 2020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졌기에 선행 연구는 주로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즉, 여행지리 교육과정에 개발 과정에 대한 논의(심승희·김현주, 2016)를 시작으로, 중국의 관광지리 교육과정과 비교(강창숙, 2016), 여행지리 성취기준의 의미구조 분석(이동민, 2016), 세계지리와 여행지리 교육과정의 비판적 분석(이경한, 2018)이 이루어졌고, 과목의 목적과 가치, 내용, 수업방법을 탐색한 연구(김기남, 2021)가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여행지리' 과목의 정체성 정립과 학교에서 의미 있는 과목으로의 정착을 견지하면서, 여행자로서 학생들의 심미감과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내용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2편 정도 이루어졌으며, 교사의 노력과 학습자 이해에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여행지리 수업을 담당했던 교사들의 교육현황에 대한 연구(김지수, 2020)에서는 교사들이 다른 지리 과목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다양한 학생 활동으로 차별성을 도모하면서 과목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밝혔다.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손민석·이진희, 2022)에서는 학생들의 단원에 대한 인식과 과목에 대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여행지리 과목의 목적과 의미는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 교육과정으로 실천되고, 학습자가 경험한 교육과정으로 그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 교수요목기 이후 70여 년간 고등학교 과목으로 편제되어 온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와 달리 신생 여행지리는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그 정체성을 질문받는 과목으로 첫걸음을

www.kci.go.kr

시작하였다. 여행지리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실행은 교육당국의 수업자료 지원, 학계의 현장 요구 조사와 지원, 교사의 수업 연구 등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원활하지 못하고 교과교육학적인 논의도 매우 부진하다.[2] 게다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여행지리는 진로 선택과목과 성격이 다른 융합 선택과목으로 편제되었기에 과목 정체성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행지리 교사 교육과정을 설계, 실천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특성을 바탕으로 여행지리 과목의 정체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교사의 교육과정 계획과 운영에서 중점을 둔 실천적 지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학생들은 수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고 경험하였는가? 이다. 이에 여행지리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특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기대하는 여행지리 과목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 교육과정의 반성 및 반성적 실천의 경험을 제공하여 교사의 교육적 실천 역량과 전문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강원도 강릉지역 일반 고등학교인 K고등학교 2021학년도 3학년 1, 2학기에 실행된 A교사의 여행지리 교사 교육과정 실천을, 전공 교수와 함께 설계하고 진행한 실행연구이다. 실행연구는 연구자로서의 교사가 교사와 학생의 필요에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하며, 교사의 실천적 반성 행위를 이끌어 교사의 전문성 함양과 교실 수업 개선에 기여하려는 실천적이고 교육적인 연구다(강창숙, 2019, 266).

본 연구는 Cohen과 Manion(1998, 186)이 설명한 실행연구의 결정적인 특성과 마찬가지로 진행되었다.[3] 즉, A교사가 일반 고등학교 3학년에서 여행지리 교사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이를 실행한 특정 소수 학급 학생들의 인식을 통해서 여러 실체적인 특징을 밝히고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A교사의 교사 교육과정 실행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성찰하고, 반성적 실천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 위해 연구자와 교사가 상호 협력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행연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연구방법이며, 연구방법은 '질적 자료의 수집 방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이용숙 외 5인, 2005; 강창숙, 2019, 271). 여행지리 수업을 담당한 교사의 교육과정 계획과 실천에 대한 질적 자료는 현장 자료와 수시 면담으로 수집하였다. 학생들의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와 과목에 대한 인식은 A교사가 수업을 담당한 여학생 4개 학급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응답하는 개방형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4] 수집된 설문지 중에서 비교적 응답이 충실하고 유효한 60명의 자료를 선택하여 분석했다.

설문지 문항은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으며, 연구자들과 지리교사들의 검토와 범주별 질문 문항 구성을 통하여 내용 타당성(content validity)을 확보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보는 기본 사항(학생들의 대학 진학 희망 학과와 진로, 과목 선택의 이유와 기대), 수업과 학습활동에 대한 인식(단원별 학습주제에 대한 평가, 활동 내용과 방법에 대한 평가, 수행평가 내용과 방법에 대한 평가)을 주요 범주로 구분하고, 범주별로 질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학생들의 설문지 조사로 수집된 자료는 Charmaz(2006)가 제시한 '근거이론의 구성(Constructing grounded theory)' 방법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고전적 근거이론(Glaser and Strauss, 1967; Strauss, 1987; Strauss and Cobin, 1990; 1998)의 정체성과 방법에 가해진 비판에 대한 자성으로, 객관주의적 기반에서 벗어나, 열린 결말을 가진 상호작용적 과정을 견지하면서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구성주의 접근을 분석 절차로 제시한다(Charmaz 저, 박현선 외 2인 공역, 2013, 8).[5]

근거이론의 구성은 고전적 근거이론의 논리 순서를 따라 자료 수집에서 시작하여 분석 결과를 작성하고 전체 과정을 성찰하는 과정을 선형 과정이 아닌 반복적 과정으로 유연하게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다만, Glaser와 Strauss(1967)가 이론의 발견은 과학적 관찰자와는 분리된 자료에서 출현하는 것이라고 보았지만, Charmaz(2006, 189)는 근거이론이 경험적 실재(empirical realities)로부터 추상화된 일반적 수준의 도출을 목표로 추구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역사적·국지적·상호작용적 맥락에 적용될 때, 보다 강력한 이론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강원도는 제주도 지역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www.kci.go.kr

관광목적지로서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관광산업 특화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강원도의 관광산업 종사자 수는 강원도 전체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관광산업은 강원도의 고용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특히 강릉·태백권 지역은 강원도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광권역으로 경제적 기여효과가 집중되는 지역이며, 강릉은 그 중심지다. 2017년 현재 강원도는 지역관광발전지수가 전국 1위이고, 관광숙박업은 전국 대비 가장 비중이 큰 산업이다(이강욱·최승묵, 2003, 35-39; 강원연구원, 2019).

강릉은 강원도 시·군 중에서 도지정 관광지와 관광단지가 가장 많고, 방문객 또한 가장 많은 곳이다(강원연구원, 2011; 강원연구원, 2019). 이러한 지역 환경을 고려하면, 강릉지역 고등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여행 및 관광 관련 경험을 쉽게 할 수 있고, 가족이 관광산업 종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배경 환경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강원도 강릉지역 고등학교에서 '여행지리'를 이수한 학생들은 '여행지리' 국가 교육과정에서 기대하는 목적과 진로 선택과목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다 맥락적으로 의미 있는 인식 특성을 기대할 수 있다.

Ⅱ.「여행지리」학교 교육과정과 교사 교육과정

1.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 강원도 고등학교「여행지리」개설 현황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국가 주도의 중앙집중적 체제로 개발, 개정되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것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주체에 따라 국가, 지역,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구분해 왔다. 국가 수준에서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결정하고, 지역 수준에서는 지역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지침을 결정하며, 학교 수준에서는 학생 및 교사 실태, 학교 환경 등을 고려한 운영 계획을 결정하지만(교육부, 2017, 3-11), 지역 및 학교 수준의 편성과 운영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동안 국가 교육과정 중심의 중앙집중적 운영 체제의 과도한 영향으로, 교사는 교육과정 재구성자 혹은 실행자 등의 소극적인 사용자로 인식되었지만,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와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및 교사의 자율성 확대로 교사는 교육과정의 최종 의사결정자 및 개발자로 인식이 전환되었다(교육부, 2017, 3-11; 강창숙, 2021, 20-21). 이러한 변화와 함께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함양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 전문성은 교사가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상황에 따라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실천하면서 반성하는 능력을 토대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교사 교육과정은 Elbaz(1981)의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과 Schön(1983)의 반성적 실천(reflective practice)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6]

교육과정의 실제 운영과 실천적 지식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 교육과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본 연구에서 학교 교육과정은 강원도 교육청에서 결정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지침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한정한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여행지리 과목이 편성, 개설될 때, 교사 교육과정이 실천될 수 있다.

이에 강원 지역 고등학교 사회교과군의 진로 선택과목(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의 개설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여행지리 교사 교육과정의 실천과 반성'에 구조적인 문제로 영향을 주는 배경이자, 여행지리 교사 교육과정 실천의 전제 조건이다. 나아가 학생들의 선택과목 '선택'을 위한 교사들의 '불가피한 경쟁'과 같은 교과 전문성 밖의 노력과 희생을 요구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2025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문제와도 직결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 선택과목은 일반 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고등학교(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에서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자율 편성'하며, 5단위를 기본 단위로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하는 과목으로 편제되었다(교육부, 2015).

2021년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에 분포하는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6개 고등학교(일반고 85개교, 자율고 1개교, 특수목적고 6개교, 특성화고 24개교)가 분포하고 있다(강원도교육청, 2021). 이 중에서 50개(약 43%) 고등학교에서 여행지리 과목을 개설하였고(표 1), 실제 수업이 이루어진 경우는 38개교(약 33%) 정도이다. 자율고 1개교, 특수목적고 5개교, 특성화고 23개교는 여행지리 과목을 개설하지 않았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여행

www.kci.go.kr

표 1. 강원도 일반 고등학교 사회교과군 진로 선택과목 개설 유형

개설 과목명	개설 학교 수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15	15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17	20
여행지리, 고전과 윤리	3	
여행지리	15	30
사회문제 탐구	14	
고전과 윤리	1	
계	65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알리미-학교별 공시정보 (https://www.schoolinfo.go.kr/2021.12.04.)

지리 과목을 개설하거나 수업이 실행된 경우는 특수목적고 1개교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 고등학교다.[7]

사회교과군 진로 선택과목을 개설한 일반 고등학교 65개교를 대상으로 개설 유형을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행지리는 나머지 2개 과목(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과 함께 개설되거나 사회문제 탐구와 함께 혹은 단독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지역에서 사회문제 탐구와 고전과 윤리 2개 과목만 개설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지리와 같은 진로 선택과목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이해와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 과목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었기에, 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적용하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김병연, 2021, 25). 이러한 상황에서 약 33%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여행지리 과목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편성, 실행되었다는 것은 현장 지리교사의 남다른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선행 연구(김기남, 2021)에서도 학교 현장에서는 여행지리라는 과목명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과 진로 선택과목이기에 누가 선택하겠느냐는 낙담 등 부정적 전망이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꽤 인기 있는 과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2. 교사 교육과정과 실천적 지식의 구조

K고등학교 A교사의 2021학년도 3학년 대상 여행지리 교사 교육과정 계획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A교사는 여행지리 수업 경험이 두 번째다. 이 교육과정은 1, 2학기에 걸쳐 주당 2시간(2단위)씩 연간 4단위를 이수하는 과정으로 계획한 것이며, 여행지리 수업을 분담하고 있는 동료 지리교사와 협력하여 설계하였다. 여행지리 인정교과서(박종관 외 6인, 2020)를 교재로 채택하였지만, 대부분의 수업에서 교사들이 공동 개발한 학습지 및 활동자료를 주교재로 활용하였다.

교사의 여행지리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과 여행지리 인정교과서의 내용과 단원 제시 순서를 고등학교 3학년의 학기별 수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과서 중심 진도 나가기 수업'에서 벗어나 대단원을 기준으로 학습주제 통합하고 순서 바꾸기, 성취기준 재해석하고 일부 변환하기, 새로운 학습주제나 내용 설정하기 등의 적극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재구성은 3학년 1학기까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교과세특) 기록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2학기에는 수능, 대입 상담 및 서류 준비, 예체능계 학생들의 대입 실기 시험 준비 등으로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실천적 교육과정으로 구성한 것이다. 즉, 1학기 20주는 전국연합학력평가 3회, 개교기념일, 정기고사 2회, 공휴일 및 대체 휴일, 학교 행사(체육대회) 및 학급별 체험 활동, 수능 모의평가, 2회 정기고사 등의 실시로 예상되는 수업결손을 고려한 교육과정이다. 표 2의 학습주제에서 숫자 1과 2는 예상되는 수업시수를 표기한 것이다. 예를 들어 3월 4주 '지도학습 1'은 주당 2차시 중에서 1차시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학기 21주도 수능 모의평가, 추석 연휴, 공휴일, 학교 행사(현장체험학습), 수능, 정기고사 2회, 공휴일 및 대체 휴일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다.

여행지리 교육과정 계획에서 교사가 지향한 과목의 실천적 지식의 이미지는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다. 이를 위한 실천 원리는 ① 생활기록부 교과세특 기록에 도움이 되는 수업 ② 지리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③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장소감을 형성할 수 있는 수업 ④ (단순히 즐거운 여행자가 아닌) 세계시민 의식을 가진 여행자와 활동가를 지향하는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원리들의 실천을 위한 규칙들은 '활동 중심 수업, 수행평가 중심 평가'를 핵심 규칙으로 설정되었고, 규칙 또한 '다양한 여행의 직, 간접 체험 활동과 활동 중심

www.kci.go.kr

표 2. 2021학년도 K고등학교 A교사의「여행지리」연간 운영 계획

월	주	대단원		학습주제	주요 활동
		국가 교육과정	교사 교육과정		
3	1	I.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	I. 여행 준비하기	여행지리 과목 소개 2	· 여권 만들기 · 지도 읽고 활용하기 · 교통 정보 탐색하기 · 여행 준비 포트폴리오
	2			여행의 의미 2	
	3			여행의 종류, 영향 2	
	4			지도학습 1	
	5			지도학습 2	
4	1	II. 매력적인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 III.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	II. 여행 계획하기	국내 대표적인 여행지 소개하기 2	· 국내 여행 계획하기 · 해외 여행 계획하기
	2			해외 대표적인 여행지 소개하기 1	
	3			국내 여행 계획하기(교통, 숙박 등) 2	
	4			국내 여행 계획하기(교통, 숙박 등) 1	
5	1			해외여행 계획하기(교통, 숙박 등) 1	
	2			해외여행 계획하기(교통, 숙박 등) 2	
5	3	VI. 여행과 미래 사회 그리고 진로	III. 진로와 여행	진로 여행지 조사하기 1	· 진로 여행 프로젝트
	4			진로 여행지 조사하기 2	
	5			진로 여행 계획하기 1	
6	1			진로 여행 계획하기 2	
	2	II. 매력적인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 III.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	IV. 우리 지역 여행하기	우리 지역 여행지 조사하기 2	· 우리 지역 작은 여행 체험
	3			우리 지역 여행지 조사하기 2	
	4			우리 지역 여행 계획하기 1	
7	1			우리 지역 여행 결과 발표하기 1	
	2			우리 지역 여행 결과 발표하기 2	
8	1	IV. 인류의 성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 V. 여행자와 여행지 주민이 모두 행복한 여행	V. 성찰 여행 탐구하기	2학기 수업 안내 2	· 성찰 여행 포트폴리오
	2			성찰 여행의 의미와 종류 2	
	3			다크투어리즘 2	
9	1			다크투어리즘 2	
	2			책임 여행과 오버투어리즘 2	
	3			책임 여행과 오버투어리즘 1	
	4			봉사 여행과 볼런투어리즘 2	
10	1			봉사 여행과 볼런투어리즘 1	
	2			생태 여행과 에코투어리즘 1	
	3			생태 여행과 에코투어리즘 2	
	4			공정 여행이란? 1	
11	1			공정 여행이란? 2	
	2			성찰 여행 상품기획서 계획하기 2	· 성찰 여행 상품기획서 만들기
	3			성찰 여행 상품기획서 제작하기 1	
	4			성찰 여행 상품기획서 나눠보기 1	
	5			다크투어리즘 사례 발표하기 2	· 사례 탐구 및 발표
12	1			책임 여행 사례 발표하기 2	
	2			봉사 여행 사례 발표하기 2	
	3			생태 여행 사례 발표하기 2	
	4			공정 여행 사례 발표하기 2	
	5			성찰 여행 수업 마무리 1	

www.kci.go.kr

수행평가'로 실천되었다. 이에 수업은 교사가 제공하는 학습지나 활동지를 중심으로 탐구하고 발표하는 활동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교사가 '학생들의 체험'이 중요하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학습주제는 '수행평가' 활동으로 실행되었다(표 3).

교사는 여행지리 과목의 정체성을 국가 교육과정 편제에서 규정한 진로 선택과목이라는 특성에 기반하여 '내신 성적이나 지필고사의 부담은 없고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설정하면서, 수업 실천의 초점은 수행평가에 두었다(표 4). 수행평가 활동의 주제 및 내용의 초점은 여행 준비와 체험에 기본이 되는 지식과 기능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나의 여행을 계획하여 간접 및 직접 체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데 있다.

Ⅲ. 「여행지리」 과목에 대한 학습자 인식 특성과 반성

1. 학생 설문지 조사 자료 코딩 분석 결과

근거이론의 구성 방법 및 고전적 근거이론의 비판과 수정 논의의 핵심은 모두 코딩에 있다.[8] 본 연구에서는

표 3. A교사의 「여행지리」 과목 실천적 지식의 구조

이미지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수업			
	⇩			
원리	생활기록부 기록에 도움이 되는 수업	지리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긍정적인 장소감을 형성할 수 있는 수업	세계시민 의식을 가진 여행자와 활동가를 지향하는 수업
	⇩			
규칙	활동 중심 수업, 과정 중심 수행평가			
	·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실제 여행에 도움이 되는 학습 · 가상 여행 체험 · 여행 계획과 준비 역량 함양	·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장소감 경험 · 지역에 대한 자긍심 함양 · 다양한 장소감 체험	· 성찰 여행 사례 탐구 · 다양한 성찰 여행 체험 ·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 경험
	⇩			
실천	다양한 여행 체험 활동, 체험 활동 중심 수행평가			
	· 진로 여행 프로젝트 · 수행평가 100% 운영	· 여행 준비 포트폴리오	· 우리 지역 작은 여행하기	· 성찰 여행 포트폴리오 · 성찰 여행 상품기획서 만들기

표 4. 수행평가 활동 주제 및 내용

학기	활동 주제	활동 내용
1	여행 준비 포트폴리오 (20%)	· 여행 준비와 체험에 기본 지식과 기능이 되는 지도 읽기 및 활용을 학습하는 '지도 읽고 활용하기' 활동지 작성 · 여행 준비와 체험에 기본 지식과 기능이 되는 교통 정보를 탐색하고 학습하는 '교통 정보 탐색하기' 활동지 작성 · 여행지의 자연 및 인문지리 정보를 탐색하고, 교통 및 숙박 정보 등 여행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활동지로 탐구
	진로 여행 프로젝트 (40%)	·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진로와 관련된 국가, 지역, 장소, 진로 계획 등을 담은 진로 여행 계획서 작성, 발표하기
	우리 지역 작은 여행하기 (40%)	· 우리 지역의 여행지를 탐색하고, 작은 여행을 계획하여, 체험한 과정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기
2	성찰 여행 포트폴리오 (40%)	· 바람직한 성찰 여행의 5가지 사례를 탐구하는 활동지 작성
	성찰 여행 상품 기획하기 (60%)	· 성찰 여행 상품기획서 작성하고 발표하기

www.kci.go.kr

초기 줄코딩(line-by-line coding)과 초점코딩(focused coding)의 두 가지 주요 단계를 반복하면서 '이론을 개발'하는 중심축을 구성하였다. 개방적으로 진행되는 초기 줄코딩은 '기록된 자료의 줄'마다 이름(코드)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이는 수집된 자료를 밀착 조사하여 연구자의 아이디어를 개념화하는 전략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설문지 응답을 문장 단위로 분석, 진행하였다. 초점코딩은 코딩의 두 번째 단계로 초기 줄코딩보다 더 지시적이고 선택적이며 개념적인 코딩으로 많은 양의 자료를 분리, 정렬, 종합함으로써 코드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

학생들의 설문지 조사에 근거한 자료 코딩 과정에서 초기코딩의 코드는 학생들이 설문에 개방적으로 응답한 용어, 즉, 학생들이 응답한 용어를 그대로 채택하는 내생적 코딩(in vivo codes)을 진행하였다. 초기코딩의 유사성과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초점코딩을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코딩의 범주를 구성한 결과는 표 5와 같다.[9]

본래 근거이론 방법에서 궁극적으로 도출하려는 분석 결과는 '이론(코딩)'이다. 표 5를 통해서 "학생들은 여행지리 수업을 다양한 여행을 체험하고, 실용적인 여행 지식을 학습하는 여행 중심의 재미있는 수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리를 여행으로 학습하는 과목으로 인식하는 측면도 공유하였으며, 진로에 유용한 과목으로 인식하였다."와 같은 한 문장으로 코딩 분석 결과를 통합하는 것을 '이론'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론'은 곧 수업 현상이다.

교실에서 실행되는 교육과정, 수업, 학습 등과 관련된 현상 중에서 탈시간적, 탈맥락적으로 일반화가 가능한 것은 거의 없다. 현장에 기반한 이론을 찾으려는 근거이론은 교사 교육과정 실천의 미시적이고 국지적이며 맥락적인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연구 절차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도출된 최상위 범주의 코드들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수업은 교사가 실제로 가르친 교육과정과 학습자가 학습하고 경험한 교육과정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교사가 계획하고 가르친 교육과정의 결과는 학습자의 학습한 교육과정으로 나타난다. 이에 코딩 분석 결과는, 5개 이론 코딩 범주별로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학습자의 구체적인 인식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 재미있는 수업

학생들의 설문지 응답 내용을 문장 단위로 정리하여 코딩 분석하는 과정에서 출현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키워드는 재미, 여행, 실용성, 지리의 4개 개념이고, 진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4개의 중점 키워드 중에서도 '재미있다'는 여행, 실용성, 지리의 3개 범주와 연결되어 학생들이 '여행지리 수업이 재미있다'고 인식하는 현상의 중심이 되는 핵심 범주로 나타났다. 관련 연구(고영빈·지은림, 2022)에 의하면,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목 이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업에 대한 만족도'이다. 학생들이 여행지리 수업이 재미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핵심 범주로 나타났다는 것은 '수업 만족도'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여행지리는 내신, 지필고사 등 성적 부담이 없고, 학습 내용이 쉬워서 재미있고,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처음 보는 새로운 내용을 배워서 재미있는 수업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으로 여행을 체험하는 수업이고, 여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나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응답하였다. 지리와 관련된 인식은 양면적으로 나타났다. 즉, 지리를 좋아하니까 '지리를 여행으로 학습'하는 것이 재미있다는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여행을 좋아하지만 일부 내용(세계의 문화, 지형 등)은 '지리에 대한 학습으로 어렵다'고 평가하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도 함께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여행지리 학습 내용을 세계지리의 연속 혹은 지리 학습의 계속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의미 있는 비중으로 나타났다.

2) 여행을 체험하는 수업

학생들은 자신들의 국내 및 해외여행과 진로 여행 계획하기를 통해 가상으로 여행을 상상하고 체험하는 활동, 우리 지역 여행을 직접 체험하는 활동, 5가지 성찰 여행을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여행지리는 다양한 여행을 체험하는 수업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활동이 재미있었고,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의 여행을 계획하고 상상하는 것이 재미있었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여행'은 학생들이 여행지리를 '재미있는 과목'으로 인식하는데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키워드로 분석되었다.[10] 즉, 학생들에게 지리보다는 여행에 대한 학습이 여행지리 수업에 대한 비교

www.kci.go.kr

표 5. 설문지 조사 자료 분석에서 나타난 코딩 범주

초기코딩	초점코딩	이론 코딩
· 내용이 쉬운 과목	부담 없는 과목	재미있는 수업
· 시험을 보지 않는 과목		
· 내신, 시험 부담이 없는 과목		
·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가 좋다	활동이 재미있는 수업	
·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인정하는 수업		
· 다양한 활동이 재미있는 수업		
· 호기심이 생기는 내용		
· 재미있는 내용이 많다.	새로운 학습 내용	
· 선생님 설명이 재미있다.		
· 처음 배우는 내용이 많다.		
· 여러 지역의 문화 학습이 흥미롭다.		
· 여행을 좋아함		
· '여행'에 대한 학습이 흥미로움	여행(지)에 대한 학습	여행을 체험하는 수업
· 학습보다는 여행이 중심		
· 지금까지 몰랐던 생소한 유형의 여행을 학습		
· 외국의 유명 관광지에 대한 학습		
· 활동적인 과목	다양한 활동으로 여행을 체험	
· 재미있는 활동		
· 실제 여행하는 느낌이 좋다.		
· 실제 견학이나 여행 체험이 좋다.		
· 일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	여행에 필요한 실용적 지식 습득	실용적인 여행 지식 학습
· 여행(지)에 대한 정보나 지식 습득		
· 여행에 필요한 실용적 지식 습득		
· 여행 에티켓 학습	바람직한 여행(자)에 대한 성찰	
· 여행(지)의 명암을 학습		
· 그동안의 여행을 반성하게 하는 내용		
· 봉사여행과 생태여행의 가치를 학습		
· 여행은 즐겁지만 지리는 어렵다.	세계지리를 여행으로 학습	지리를 여행으로 학습
· 여행하듯이 세계지리 학습		
· 세계 유명 지역을 학습		
· 지리를 좋아해서 여행지리도 좋다		
· 지리는 어렵다	지리를 학습하는 과목	
· 지리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과목		
· 추가적인 지리학습		
· 세계의 주요 지형, 문화 등의 지리학습		
· 대학 진로와 관련된 과목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과목	진로에 유용한 과목
· 진로 관련 교과세특에 도움이 되는 과목		
· 대학 진학 예정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		
· 진로와 관련 있는 내용 학습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는 과목	
· 진로와 관계있는 활동		
· 다양한 진로 탐색에 도움		

www.kci.go.kr

적 높은 기대감이나 흥미를 갖도록 하고,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일상에 실용적인 과목으로 인식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여행지리 수업에서 이루어진 여행 체험의 대부분은 학생들의 지리적 상상력에 기반한 가상 체험이었다. 학생들의 여행지리 수업에 대한 사전 기대를 조사한 문항에서 '여행을 직접 체험할 것'이라는 순수한 기대감을 응답한 경우가 상당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입시생인 고등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에 교사는 교육과정의 대부분을 '여행 계획하기'의 가상 여행 활동으로 계획하였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하는 '우리 지역 작은 여행하기'라는 직접 체험 여행을 실행하였다. 이 여행은 넓게는 강원도 전체, 좁게는 우리 동네를 여행지로 체험하는 활동이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장소를 알게 되었고', '우리 지역의 명소를 제대로 알게 되었으며', '우리 고장이 유명한 관광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나에게 의미 있는 장소를 방문하게 되었으며', '직접 여행하고 발표하여 매우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오랫동안 기억할 추억이 될 것'이라는 등의 측면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실용적인 여행 지식을 학습하는 과목

많은 사람이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이 일상이 되는 시대를 사는 학생들은 현재 그리고 미래 여행자이다. 학생들은 I단원(여행 준비하기)부터 V단원(성찰 여행 탐구하기)까지 각 단원에서 이루어진 학습 내용을 '실용적인 여행 지식'으로 나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학습내용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모든 단원에서 이루어진 학습 내용과 활동의 주체가 '나'로 설정되었기에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 내용이나 활동 참여와 과제 완성의 의미를 '나의 여행'이라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학습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각 대단원의 주제는 I. (나의) 여행 준비하기, II. (나의) 여행 계획하기, V. (나의) 성찰 여행 탐구하기 등 학습자를 주체로 수업 및 활동 주제를 계획하고 실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I단원에서 이루어진 (나의) 여권 만들기, 지도 읽고 활용하기, 교통 정보 수집하고 활용하기 등의 활동 내용을 나의 여행과 일상에 필요한 실용적 지식으로 인식하였다. 나아가 II단원에서 V단원까지 각 단원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여행 계획하기' 활동에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학습 과정으로 진행된 여행지의 지리 환경이나 지역 특징을 조사하고 탐구한 내용을 '여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2학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성찰 여행 탐구하기(V단원)의 학습과 활동에 대해서는 여행자가 여행지와 주민에게 지켜야 할 '에티켓이나 매너를 배우고', '세계적인 관광지의 어두운 과거 역사와 현재의 번성을 학습하며', '여행은 놀이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여가 활동임을 깨닫고' '그동안의 나의 여행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나도 봉사여행이나 생태여행을 하고 싶다'와 같이 바람직한 여행(자)의 가치·태도를 성찰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실용적인 여행 지식 학습'은 교과 학습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표를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가치·태도 함양의 정의적 영역과 실천적 행동목표까지 아우르는 범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이경한, 2018)에서 여행지리 교육과정이 세계시민교육에 중요한 내용으로 조직되어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바탕이기에 교사는 학생들이 비판적 관점을 갖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특히 '성찰 여행 탐구하기' 단원의 재구성은 학생들의 비판적 세계시민의식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적절한 교육과정으로 실천되었다.

4) 지리를 여행으로 학습하는 과목

여행지리를 '지리를 여행으로 학습하는 과목'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재미있는 수업' 및 '여행을 체험하는 수업' 범주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주인 동시에 서로 인식이 상대적인 범주로 나타났다. 즉, '지리를 여행으로 학습하는 과목'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세계지리를 여행으로 학습하는 과목'이나 '지리를 학습하는 과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리'가 학습 목적이고, 여행을 그 수단이나 도구로 인식하는 학생들은 "지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하듯이 세계지리를 학습하거나 여행지리를 학습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는 경우와 "여행은 즐겁지만 지리는 어렵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 부정적 인식이 공존하는 범주로 나타났다. 일부에

www.kci.go.kr

서는 '세계의 지형 혹은 문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리를 학습'하는 과목, 즉 세계지리의 연속 혹은 보충 과목으로 인식하였다.

5) 진로에 유용한 과목

여행지리를 '진로에 유용한 과목'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과목'과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주요 범주로 나타났지만, 학생들의 응답 비중은 5개 범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사는 여행지리가 국가 교육과정에서 진로 선택과목으로 편제된 것을 근거로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실천적 지식의 최상위 이미지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수업을 실행했지만 학생들의 인식은 재미, 여행, 지리, 실용성에서 과목의 이미지, 즉 정체성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진학 예정인 학과(주로 지리학과, 지리교육과, 관광학과, 방송 및 광고 관련 학과)에서 여행지리 이수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이는 해당 학과에서 여행지리를 대학 전공과 연계하여 필수 이수(혹은 이수 권장) 진로 선택과목으로 지정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행평가 등 수업 활동에 대한 교과세특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이다.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학습 내용이 여행 및 관광 분야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이해되었고, 대학 진학이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진로 여행 프로젝트' 활동이 구체적인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그 비중도 낮지만, 여행지리가 아닌 다른 진로 선택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무엇보다 여행지리가 진로 선택과목으로서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교육과정이나 학습 내용을 구성했느냐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은 설문지에서 학생들이 '대학에서 희망하는 전공이나 학과'로 응답한 내용과 '여행지리 학습 내용이나 활동과 직접 관련된다'고 제시한 직업들이다. 두 가지 질문은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없는 별도의 문항으로 제시되었으며, 각각의 응답을 유사성을 갖는 범주로 구분한 것이다.

여행지리를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희망하는 전공을 계열별로 대략 구분하면, 인문학, 보건·복지계열, 사회과학, 디자인 계열(예능계), 사범계, 공학계, 기타(자연계, 체육계)의 7개 범주로 나타났지만, 학생들의 희망 전공은 인문계, 보건·복지계열, 사회과학, 디자인 계열 등 4개 범주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학생들이 여행지리 학습 내용이나 활동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직업은 사회과학의 관광·경영계열에 집중되어 나타났고, 인문학, 디자인

표 6.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 전공과 「여행지리」와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직업

대학에서 희망하는 전공	여행지리와 관련되는 직업
고고미술사학과, 문헌정보학과, 통번역학과, 어문계, 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문화콘텐츠학과,	고고학자, 칼럼니스트, 여행 작가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스포츠재활학과, 동물보건과, 동물자원학과, 사회복지학과	-
경영학과,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호텔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광고홍보학과	관광부 장관, 관광 마케터, 관광 경영, 관광 통역사, 여행사 경영, 여행 상품 기획자, 여행 유튜버, 여행 플래너, 여행 가이드, 승무원, 항공사 직원
패션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과, 영상디자인과, 영상학과, 만화창작과, 공예학과	패션에디터, 스타일리스트
지리교육과, 역사교육과, 영어교육과, 유아교육과, 체육교육과	지리교사, 지리학자, 역사 관련 직업
공간정보공학과, 도시공학과, 게임공학과	-
식품영양학과, 경호학과	-
-	여행가, 외교관, 탐험가, 운전기사

www.kci.go.kr

계열, 사범계 지리교육과 관련되는 소수의 직업을 제시하였다. 기타(여행가, 외교관, 탐험가, 운전기사)는 대학의 특정 전공과 무관하게 선택될 수 있는 직업들로 생각된다. 이에 여행지리는 관광·경영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행지리는 지리 과목으로 개설되었기에 과목의 정체성을 지리에 두고 있지만, 학생들이 인식하는 관련 직업은 여행과 관광에 집중되어 있다. 하나의 선택과목으로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진로를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지만, 학생들이 인식하는 직업이 관광과 여행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국가 교육과정이나 교사 교육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고영빈·지은림, 2022), 진로 선택과목 이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업에 대한 만족도'였고, 두번째는 '진로 성찰에의 도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진로 선택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서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고교학점제 실시와 관련하여 지리과 진로 선택과목의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직할 필요가 있다.

6) 학습자의 침묵과 무응답

학생들의 개방형 설문지에 대한 응답 내용을 하나의 문장 단위로 분석하여 여행지리 과목에 대한 인식을 5개 범주의 현상으로 도출하였지만, 모든 설문에는 '침묵하고 무응답하는' 응답자가 있다. 응답자가 특정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개방형 설문은 특히 탐색적인 연구나 초기 연구단계에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반면 응답자가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반드시 한 개의 응답을 선택해야 하는 폐쇄형 설문과 달리, 문항에 따라 응답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Neuman 저, 박기우 외 4인 옮김, 2013, 354-355).

응답자로부터 유효한 응답을 얻지 못한다면 설문조사의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응답자들은 유효하지 못한 응답을 할 수 있다. Neuman(2011)은 응답자의 유효하지 못한 응답 경향을 3가지 유형으로 설명하였다. 첫째는 응답자가 자신의 응답을 과장하거나 입장을 축소하여 응답함으로써 '왜곡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심각하고 진지한 문제에 대해 어림짐작으로 응답하는 '허위 긍정'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 응답자는 아는 것이 없거나 실제로 어떤 의견도 없다. 세 번째는 실제로 응답자는 정보나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설문 문항에 대해 부분적이고 선별적으로 응답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허위 부정'의 경우이다(Neuman 저, 박기우 외 4인 옮김, 2013, 355).

여행지리 교사 교육과정은 학습자 활동 중심 수업으로 실천되었다. 이와 관련한 학습자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여행지리 수업 활동에서 가장 재미있거나 의미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행지리 수업 활동에서 가장 어려웠던 활동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문항에서 학생들의 침묵과 무응답은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두 가지 질문에서 학생들의 침묵과 무응답은 '없다 혹은 ×',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로 응답하거나 빈칸으로 남겨두는(무응답) 4개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응답

표 7.「여행지리」수업 활동에 대해 침묵하거나 무응답한 학생 비중

가장 재미있는 활동(명)				
허위 긍정			허위 부정	계
없다. 혹은 ×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무응답	
6	3	2	5	16
11			5	
가장 어려웠던 활동(명)				
없다. 혹은 ×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무응답	계
11	2	1	7	21
14			7	

www.kci.go.kr

자 60명 중에서 각각 16명(26.7%)과 21명(35.0%)으로 그 비중이 매우 높다. 근거이론의 구성 방법으로 분석했을 때, 주요 범주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비중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범주다.

본 연구에서는 Neuman(2011)의 유형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침묵과 무응답'에 대해 시론적인 분석을 시도한다.[11] 즉, 무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응답을 침묵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침묵하는 경우를 '허위 긍정'으로, 무응답하는 경우는 '허위 부정'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 두 가지 유형은 '중립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인 동시에, 질문에 대해 인지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허위 응답 혹은 왜곡 반응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고려할 수 있다.[12]

학생들의 침묵과 무응답의 이유는 복잡한 요인에 의한 결과로 보이지만, 두 질문 모두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허위 긍정(faking-good) 현상이다. 허위 긍정은 일종의 긍정 왜곡 반응으로,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보다 호의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왜곡하는 반응 태세이다(어윤경, 2006, 243).

허위 긍정 현상은 '가장 어려웠던 활동'에 대한 응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현상의 의미를 읽어 내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면담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추하면,[13] 상당한 비중(14명, 23.3%)의 학생들이 여행지리 수업 활동에서 유의미한 학습을 경험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행지리 사례뿐만 아니라, 모든 지리수업에서 교사가 학습자에 유의미한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 교사 교육과정의 실천과 반성

여행지리는 지리교과가 본래 추구해 온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교과의 핵심 개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 요소, 과목 목표, 성취기준을 진술하되, 여행이라는 주제와 틀로 유용성과 흥미, 공감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과목으로 개발되었다(심승희·김현주, 2016). 여행지리의 과목 정체성은 지리가 목적이고, 여행은 수단으로 구성된 과목이면서,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해야 하는 과목으로 편제되었다.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A교사에게도 여행지리는 낯설고 수업이 두려운 과목이었다. 교사 자신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수강한 적이 없는 과목이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대학 입시 과목으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수업을 운영해 온 A교사에게 여행지리 수업은 하나의 도전이었다. 여행지리 수업을 처음 경험한 2020학년도에 여행지리는 공통과목이나 일반 선택과목처럼 석차등급제(9등급 상대평가)로 성적을 산출해야 했기에, 교과서 단원 구성을 따른 설명식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사의 설명이나 학습지는 의식, 무의식적으로 '지리'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교사 스스로 세계지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자각과 반성을 했지만, 한국지리나 세계지리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지리를 설명하는 시간으로, 선이수한 학생들에게는 보충하고 심화하는 시간으로 수업을 운영하였다. 지필고사와 함께 수행평가도 실시하였지만, 평가를 위한 평가로 진행했다는 생각이 든다.

2021학년도에 여행지리는 평가 방식이 성취평가제(A, B, C 3단계 성취평가,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서, 교사도 성적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활동 중심의 진로 선택과목 운영을 시도하게 되었다. 여행지리를 함께 담당했던 동료 교사는 지리와 수업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교사이기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졌고, 수업전략 및 학습자료 개발을 협업하면서 '학습자 활동 중심의 의미 있는 수업'을 제대로 운영해 보기로 했다.

이에 A교사는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목표로 학생들의 ① 생활기록부 교과세특 기록에 도움이 되는 수업 ② 지리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③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장소감을 형성할 수 있는 수업 ④ (단순히 즐거운 여행자가 아닌) 세계시민 의식을 가진 여행자와 활동가를 지향하는 수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천하였다.

교실 수업에서는 '지리'가 '여행'이라는 친숙한 소재로 학생들에게 부담없이 다가가고, 나아가 '지리'라는 학문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과 도움을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평가에 대한 부담 없이 수업에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지리와 여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접경험'과 '직접경험'의 기회 제공을 실천하였다. 나아가 학생들에게 '지리'라는 학문이 가까이는 나의 대학 진학 목표, 멀게는 꿈과 진로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는 것을 느

www.kci.go.kr

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A교사는 '여행지리'라는 과목명이 갖는 한계, 즉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쉬운 과목이라는 이미지', '단순히 쉽고 즐거운 여행만 다룬다는 오해' 등으로 어려워 보이는 다른 과목을 제외한 차선으로 여행지리를 선택함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학생들의 설문지 분석 결과에 대한 A교사의 소감은 다음과 같다.

> "1년 동안 수업을 함께한 학생들의 설문지 응답 결과를 보면서, 의도한 목표의 일부는 이루었지만, 진로 선택과목으로서의 여행지리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지리'라는 학문이 '여행'이라는 친숙한 소재와 만나고, 평가의 부담을 줄이면서 수업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활동과 수업자료를 개발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것 같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경험하고, 내 주변의 사례를 찾아보며 '지리'라는 학문이 내 삶과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음을 느낄 기회와 우리 지역과 장소감에 대해 파악할 기회도 제공한 것 같다. 학생들이 새로운 여행의 주제(성찰여행 등)에 흥미를 느끼고, 미래의 여행자이자 세계시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행동에 대해 고민한 점을 발견해서 보람을 느꼈다.
> 하지만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목표로 구성하고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라는 학문이 다양한 전공 및 진로와 연계되어 있고, 나아가 내 꿈과 진로·진학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깨닫거나 경험할 수 있었던 활동이 미흡했던 것 같다. '여행지리'라는 과목명이 주는 한계를 수업운영을 통해 극복하는 노력도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A교사는 여행지리 교사 교육과정 중심을 지리에 두었고, 지리 과목으로 수업을 운영하였지만 학생들의 과목 인식의 긍정적인 요소가 여행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지리 수업은 학생들이 다양한 여행을 체험하는 활동 중심으로 운영되고, 여행에 필요한 지리적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교사의 수업전략은 수행평가 100% 운영, 교과세특 기록 내용 중시, 진로 선택과목 특성 고려에 중점을 두었고, 모든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1학기 수업은 진로 관련 활동, 우리 지역 관련 활동으로 진로 선택과목의 의미를 살리고,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체험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였다. 2학기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수업에 부담 없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계획하였다. 나아가 학생들이 여행의 의미를 고민하고, 자신들의 삶에 의미 있는 여행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수업운영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연구자는 A교사에게 국가 교육과정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이른바 백워드 교육과정(혹은 이해 중심 교육과정)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과감한 교사 교육과정의 계획과 실천을 권유하였지만, 연구 설계부터 진행 과정에서 교실과 학습자 이해의 전문성과 통찰력 부족을 실감하였고 반성하였다.

연구자들은 교사 교육과정의 실천과 성찰을 토대로 차년도 교육과정의 반성적 실천 과제로 다음 세 가지를 도출하였다.

먼저, 지역과 학교 및 학습자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천한다. 관광도시 강릉의 지역적 특성을 교육과정 내용과 학습자 활동자료에 맥락적으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지역 환경 이해와 탐구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점을 반성했다.

둘째, 학생들의 진로 연계 교육과정을 지리와 여행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진로 분야와 연계성을 부각하는 수업전략과 활동자료를 개발한다. 많은 교사가 여행지리 과목의 문제점으로 진로 연계성과 계열성의 미약함을 지적했고(김지수, 2020, 32), 이는 여행지리 과목의 정체성 및 학생들의 과목 선택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사 교육과정의 핵심이자 학생들 활동의 중심이 되는 수행평가 활동 주제 5가지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기에 계속 진행한다. 다만, 학습지와 활동 내용의 양은 줄이고 정교화하며,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 과정에 의미 있는 조력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진정한 스캐폴더가 되도록 노력한다.

Ⅳ. 정리 및 결론

본 연구는 여행지리 과목 교사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천하였으며, 여행지리를 진로 선택과목으로 이수한 학

www.kci.go.kr

생들의 인식을 탐구하고, 연구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반성적 실천의 과제를 도출하는 실행연구이다. 교사와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는 적절히 수집되었고 수시 면담으로 보완되었지만, 학생들의 설문지 조사는 충분치 못한 한계가 있다. 개방형 설문지로 진행된 학생들의 응답은 근거이론 구성 방법으로 분석했지만, 근거이론의 장점인 '자료가 포화상태로 과잉될 정도로 수집'되지 못했고, 추가 면담도 실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지만, 교사의 여행지리 교사 교육과정의 실천과 학습자 인식 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행지리 과목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실행연구를 통해, 일반 고등학교에서 '여행지리 교사 교육과정 실천과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맥락적이고 미시적인 현상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 교육과정의 반성적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사 교육과정의 실천적 지식은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목표로 생활기록부 기록에 도움이 되는 수업, 지리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긍정적인 장소감을 형성할 수 있는 수업, 세계시민의식을 가진 여행자와 활동가를 지향하는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여행지리 과목에 대한 인식은 재미있는 수업, 여행을 체험하는 수업, 실용적인 여행 지식을 학습하는 과목, 지리를 여행으로 학습하는 과목, 진로에 유용한 과목의 5개 범주로 나타났다. 재미, 여행, 실용성, 지리의 4개 개념은 출현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진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밖에 설문지 응답에 '침묵하고 무응답'하는 비중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 학생이 여행지리 수업에서 유의미한 학습을 경험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현상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여행지리 과목의 정체성은 서로 모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지리적 이해를 목적으로, 여행을 수단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였지만, 학생은 '여행'이 목적이고 '지리'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00지리'의 형식으로 명명되는 고등학교 지리과목 정체성과 관련하여 계속될 문제로 보인다.

둘째, 학습주제가 인지적 지식 이해에 중점을 두고있어도, 학습자가 일상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으로 전개되면, 학습자의 긍정적인 경험의 내면화를 통해 교실수업이 목적하는 인지적, 정의적, 실천적 영역의 목표 달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여행지리 과목을 사례로 이루어졌지만, 내용과 결과는 다른 과목에 적용될 수 있다. 연구 내용과 결과를 통해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학습자의 학습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반성적 실천이 이루어질 때 함양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은 교사 교육과정의 실천과 성찰을 토대로 차년도 교육과정의 반성적 실천 과제를 도출하였지만, 이는 A교사의 교사 교육과정 계획-실행-관찰-반성의 순환적 활동이 계속될 때 교육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에 학교와 지역 환경을 고려한 능동적인 교사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반성적 실천을 제안한다.

주

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되며,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으로 구분된다.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2018년 1학년, 2019년 2학년, 2020년 3학년에 시행되었다(교육부, 2015).
보통교과에 편제된 진로 선택과목은 실용 국어 등 21개 과목이고, 전문교과에 편제된 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다. 게다가 2023학년도 수능에서 탐구영역은 17개 과목(사회교과군 9개 과목, 과학과 일반 선택 4개 과목 및 진로 선택 4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토록 하는 정책(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과목 선택 경쟁 시장'으로 황폐화하고 있다.
진로 선택과목 운영 및 이수에 대한 고교생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고영빈·지은림, 2022), 학생들이 진로 선택과목을 자신의 진로·적성에 맞추어 선택하는 경향이 높으나,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는 포기하게 된다는 응답이 큰 비중(64.8%)을 차지했으며, '공동 교육과정' 또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원하는 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비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 고등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은 1학년에서 주로 통합사회 등 공통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고, 2학년부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과목을 이수하도록 편성, 운영되고 있기에, 실제로 여행지리는 2020년부터 학교 수업이 시행된 경우가 많다. 대

www.kci.go.kr

략 2년 정도 실행된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성찰할 겨를도 없이 2022년에 개정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여행지리는 융합 선택과목으로 편제되었다(교육부, 2022, 26). 교육과정이 실험실의 개구리로 취급되는 극단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2) 이러한 문제는 여행지리 외 다른 진로 선택과목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사탐 영역 진로 선택과목인「고전과 윤리」에 대한 연구는 4편(김민재·김익수, 2017; 김병연, 2021; 김미덕·이경무, 2021; 강수정, 2021) 정도 보고되고 있으며,「사회문제 탐구」에 대한 연구는 1편(오연주, 2022) 정도가 보고되고 있다.

3) Cohen과 Manion(1998, 186)이 설명한 실행연구의 결정적인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Small-scale의 실재 세계에 기능적으로 개입하고 중재하지만, 그러한 개입이나 중재의 효과에 대한 실험은 하지 않는다. 실행연구는 여러 실체적인 특징들을 밝히고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은 특정한 맥락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실행연구는 보통 연구자와 실천가가 팀을 구성하여 상호 협력적으로 함께 진행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팀 구성원들은 연구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과제를 분담한다. 실행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실에서의 실천을 개선해 가는데 있다.

4) 설문지 조사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라 익명으로 진행되었고, 연구윤리와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질병관리청의「생명윤리법 관련 온라인 교육과정」(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 제21CAA08066호, 제21CAA08070호)을 이수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 개인 정보나 학습지 등의 자료는 물론 K고등학교나 A교사에 대한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나 설명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생략하였다.

5) 근거이론은 기존의 개념이나 이론적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대신 현장에 기반한 근거로부터 새로운 이론적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현상에 대해 귀납적으로 도출한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사용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Strauss and Corbin, 1990, 24: 신경림 역, 2001). Glaser와 Strauss(1967)가 제시한 근거이론의 개념이 질적 연구자들에게 귀납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이론이라는 용어가 그 유용성을 상실하는 수준까지 부풀리는 역할도 하였다.

즉, 이론이라는 용어를 가볍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평이 제기되었다(Irving Seidman 저, 박혜준·이승연 공역, 2009, 266). 고전적 근거이론은 Strauss(1987), Strauss와 Cobin(1990; 1998)의 수정판으로 엄청난 성공과 독자의 관심을 받았지만, 수정판 또한 근거이론을 복잡한 기법과 절차를 따르는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Charmaz 2006, 179; 박현선 외 2인 공역, 2013, 349).

6)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실천적 지식의 개념은 '실천적 지식의 구조'이다. Elbaz(1981, 60-64)는 실천적 지식을 실천적 지식의 내용, 정향, 구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교사의 실천적 지식은 이들 세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지만, 실천적 지식의 구조는 수업에서 구체적인 실체로 드러나며, 교사가 지향하는 수업의 방향, 목적, 전략 등과 관계가 깊다. 무엇보다 교사의 경험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지식을 보다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에 수업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실천적 지식의 구조는 일반화의 정도에 따라 이미지, 원리, 규칙의 수준으로 설명된다.

7)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단위배당기준은 가) 일반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나)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2개 유형으로 대분하고,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I, II)로 구분, 제시하고 있다.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보통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통교과는 일반고(자율고 포함)에서 주로 이수하고, 전문교과I은 특수목적고에서, 전문교과II는 특성화고와 산업 수요 맞춤형고에서 주로 이수하는 교과로 제시되고 있다(교육부, 2015, 14-27).

8) Glaser와 Strauss(1967)가 개발한 근거이론에서 코딩은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순으로 이루어지지만,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개방코딩은 개념을 밝히고 그 속성과 차원을 자료에서 자유롭게 발견해 범주를 분석하는 과정이고, 축 코딩은 각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여러 하위범주와 연결시켜 분석하는 과정이며, 선택코딩은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하여 이론을 생성하는 과정이다(Strauss and Corbin 저, 신경림 역, 2001). 이러한 코딩 분석 과정을 통해서 '미시적 자료는 귀납적 이론'을 생성하게 된다.

근거이론의 구성에서 축코딩은 그 유용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범주와 하위범주 간의 관계 맺기로 한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식별하는 축코딩은 연구자가 자료를 탐색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어떠한 분석적 틀에 자료를 적용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론적 코딩은 초점코딩을 통해 선택한 코드를 따라가는 정교한 수준의 코딩으로, 초점코딩을 통해 개발한 범주가 맺어질 수 있는 가능한 관계를 식별하는 것이다.

이에 Glaser(1978, 72)는 이론적 코딩이 '분절된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 주기에' 축코딩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즉, 이론적 코딩은 수집한 초점코드에 형태를 부여하는 통합적 과정으로, 연구자가 일관성 있게 분석적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석적 이야기가 이론적인 방향을 갖도록 해 준다(Charmaz, 2006, 60-63; 박현선 외 2인 공역, 2013, 133-138).

www.kci.go.kr

9) 학생들의 설문지 조사는 수능 이후, 학생들의 가정 체험학습 등으로 학사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12월 초에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교사 교육과정에서 12월 학습주제(5가지 성찰 여행 사례 발표하기)가 수업으로 실행되기 이전이지만, 교사가 고3 수험생들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고, 설문지 작성을 간곡히 부탁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였다.

10) 선행 연구(손민석·이진희, 2022)에서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여행지리 과목을 선택한 주된 이유가 '여행'이라는 소재에 대한 매력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11) 지금까지 무응답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구 국가들에서 수행되었다.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무응답 관련 정보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의 몇몇 무응답 연구를 제외하면, 무응답 문제를 다루는 한국이나 중국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김지범 외 4인, 2014, 87).

12) 어떤 질문에 대해 아는 바가 없거나 특별한 입장을 갖지 않은 '중립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중립적인 선택지나 '의견 없음'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이다. 또한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이 인지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문제와 함께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거부하는 '선별적 거부'도 문제점이다(Neuman 저, 박기우 외 4인 옮김, 2013, 355-366).

13) 대학교 강의평가에 나타난 학생들의 응답 경향을 조사한 연구(홍경선, 2006, 21)에 의하면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무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격 평가 성향을 조사한 연구(백수경·고재홍, 2007, 98)에서는 고등학생들은 평가자 자신과 1년 동안 함께 한 가까운 급우들을 평가할 때, 자기를 낮추는 자기겸양 편향(self-abasement effect)을 나타낸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유추하면, 학생들은 수업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에 활동의 내용이나 의미가 내면화되지 않았거나, 어려운 활동이 있었지만, 1년 동안 함께 한 선생님 혹은 설문 문항에 대한 체면치레로 허위 긍정하는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설문지에 대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고려하면, 학생들이 설문지를 빨리 작성하기 위해 인지적 노력을 하지 않고 허위 긍정으로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다. 설문지 조사 시기가 수능 이후 학사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별도의 시간에 이루어졌고,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로 대면접촉이나 질문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개별 혹은 소수 집단으로 진행된 방식과 충분하지 못한 응답 시간 등이 '침묵하거나 무응답'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강수정, 2021, "「고전과 윤리」의 교수-학습 방향성 제언: 수용자 중심의 고전읽기 방법과 고전텍스트의 재구성, 윤리교육연구", 59, 95-124.

강원도교육청, 2021, 강원교육통계연보.

강원연구원, 2011, 제5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요약보고서 1).

강원연구원, 2019, 강원도 통합관광진흥기구 설립 타당성 용역 요약보고서.

강창숙, 2016, "한국의 여행지리와 중국의 관광지리 교육과정 비교",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1), 267-285.

_____, 2019, 사회과 예비교사의 수업관찰과 반성적 실천, 충북대학교 출판부.

_____, 2021, 지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탐구, 충북대학교 출판부.

고영빈·지은림, 2022,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 도입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운영 및 이수에 대한 고교생의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 1085-1102.

교육부,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1).

교육부, 2017,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교육부, 2021,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교육부, 2022,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4).

김기남, 2021, "여행지리 정착을 위한 세 가지 질문과 도전", 한국사진지리학회지, 31(1), 90-107.

김미덕·이경무, 2021, "생태 시민성 함양과 「고전과 윤리」의 고전 읽기: 『금강경』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134(1), 203-231.

김민재·김익수, 2017, "'읽기'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전과 윤리』", 2017년 한국윤리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55-172.

김병연, 2021, "『고전과 윤리』 교육과정 개정 방향 탐색", 2021년도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5-48.

김지범·최문희·강정한·한수진·김석호, 2014, "한국에서의 무응답과 조사하기 어려운 응답자", 조사연구, 15(3), 85-107.

김지수, 2020, "고등학교 「여행지리」 과목의 학교 교육 현황: 교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4(3), 17-35.

박종관·홍현철·양향자·윤지현·김기남·김지호·신혜은, 2020, 고등학교 여행지리, 천재교과서.

백수경·고재홍, 2007, "자기고양편향이 행복감과 인기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21(1), 89-104.

www.kci.go.kr

심승희·김현주,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진로 선택과목「여행지리」의 개발과 관련 논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1), 87-98.

손민석·이진희, 2022, 고등학교 여행지리에 대한 학생의 인식 조사: 김해시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지리학회지, 11(1), 29-47.

어윤경, 2006, “진로교육에 활용되는 자기보고식 심리검사의 Faking-good 탐지기능 분석”, 교육평가연구, 19(1), 241-263.

오연주, 2022, “2015 개정 교육과정「사회문제 탐구」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 비판”, 2022년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17-23.

이강욱·최승묵, 2003,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경한, 2018,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세계지리와 여행지리 교육과정의 비판적 분석”,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13(2), 39-75.

이동민, 2016,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의미구조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5(1), 1-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요강.

홍경선, 2006, “대학교 강의평가에 나타난 일관적 응답 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2(2), 97-12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알리미, 학교별 공시정보, https://www.schoolinfo.go.kr.

Charmaz, Kathy 저, 박현선·이상균·이채원 공역, 2013, 근거이론의 구성: 질적 분석의 실천 지침, 학지사(Charmaz, Kathy,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SAGE, London).

Cohen, L. and Manion, L., 1998, *Research Method in Education*, Routledge, London.

Elbaz, F., 1981, The Teacher's “Practical Knowledge”: Report of a Case Study, *Curriculum Inquiry*, 11(1), 43-71.

Glaser, B. G. and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Aldine, Chicago.

Glaser, B. G., 1978, *Theoretical Sensitivity: Advances in the methodology of grounded theory*, Sociology Press, CA.

Irving Seidman 저, 박혜준·이승연 공역, 2009,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면담, 학지사(Irving Seidman, 2006,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Teachers College Press, New York).

Neuman, W. Lawrence 저, 박기우·이정우·유희숙·문성균·박혜상 옮김, 2013, 사회 연구 조사 방법론 :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방법, 이앤비플러스(Neuman, W. Lawrence, 2011, *Social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Pearson Education Inc.).

Schön, D.,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Basic Books, New York.

Strauss, A. and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SAGE, CA.

Strauss, A. and Corbin, J. 저, 신경림 역, 2001, 질적 연구: 근거이론의 단계, 현문사(Strauss, A. and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SAGE, Newbury Park).

Strauss, A., 1987,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접 수 일 : 2023. 01. 30
수 정 일 : 2023. 02. 21
게재확정일 : 2023. 02. 22

교신: 강창숙,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gaia2004@cbnu.ac.kr, 043-261-2695)
Correspondence: Chang-Sook Kang, gaia2004@cbnu.ac.kr

www.kci.go.kr